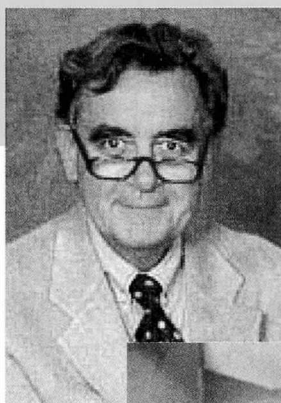


# 프랑스 독서 프로그램의 대명사 피보의 퇴장과 그 주변

‘피보 신드롬’ 사라진 독서계 풍경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프랑스의 독서 프로그램  
(부이용 드 퀴튀르)의 진행자였던  
베르나르 피보(위)와 그의 방송 모습.



지난 6월 29일 프랑스의 유명한 독서 프로그램인 <부이용 드 퀴튀르(문화의 용광로)>의 사회자 베르나르 피보가 프랑스의 대형서점인 프낙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다.

1975년부터 27년 동안 매주 텔레비전을 통해 책과 함께 있었던 피보의 모습이 프랑스인들의 시야에서 마침내 사라지게 되자, 어떤 이는 ‘국가적 슬픔’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제 아무리 프랑스가 문화의 나라고 게다가 출판강국의 탄탄한 면모를 보인다 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그 위상이 위태로워진 지 오래다. 사람들은 책을 떠나고, 책읽기를 한가한 사람들의 소일거리로 치부하는 실정이 돼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피보가 방송을 떠난 것은 모든 이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 매주 여섯권, 많게는 하루에 20권 읽어

피보는 1935년 프랑스 리용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뒤 1974년까지 《피가로》지의 문학 비평 기자로 일하면서 16년 동안 총 1천5백편의 비평 기사를 썼다. 그리고 정작 본인도 《혼한 사랑》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접고 그는 다른 작가들을 향해 끝없는 갈채를 보내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책 읽는 인생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방송을 위해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해야만 하는 생활로 접어들었다. 정말 책을 읽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

업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피보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피보가 자신의 방송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모두 다 읽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초대 손님이 보통 여섯 명이니 최소한 여섯권의 책을 매주 읽어내야 한다. 그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신 책을 읽게 하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가 진행하는 방송의 질은 바로 이런 그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 담보됐다. 그는 방송 준비를 위한 스탭 회의를 일주일마다 두번으로 국한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책 읽기에만 몰두했다.

특히, 4월과 5월, 9월과 10월 사이에는 읽어야 할 책이 하루에 무려 20여권이나 쏟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문장을 인용하거나 질문하기 위해 고개를 묻고 부지런히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며 자신이 책을 읽으면서 표시해뒀던 대목을 찾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진지하고

순진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의 모습이다. 그 모습에 시청자의 마음도 호뭇한데, 거기에 초대된 책을 쓴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을 그토록 열심히 읽어준 한명의 독자를 대할 때의 그 기꺼운 마음은 오죽할 것인가.

## 책을 매개로 보여준 인간적 미덕

그의 방송은 그를 닮아서 담백하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낮은 탁자 주변에 초대 손님들이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구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앉아서 하는 책 이야기로 일관하니, 그의 방송은 가장 제작비가 적게 드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논의된 주제와 관련해서 방송이 끝날 무렵 더 읽어보면 좋을 책을 피보가 소개하는 코너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오로지 초대 손님들과의 대화로만 이뤄진다.

그렇게 피보는 저자들과 논쟁이 아닌 대화를 나눈다. 가만히 듣다 보면, 그의 말투와 제스처가 각별히 부드럽고 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책과 작가들에 대해 좋고 싫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어휘로 대화를 나눈다. 것처럼 두런두런 나누는 대화 속에서 피보는 초대된 작가들의 개성을 저자가 아닌 한 자연스러운 인간으로 드러나게 한다.

피보의 방송에서는 현란한 이론을 듣는 것보다 저자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방송에서 언급된 책은 다음날 서점 진열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였고, 때로 그 이튿날 바로 재고가 바닥나기도 했다. 이 현상을 사람들은 ‘피보 신드롬’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 신드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토요일 아침에 둘러보는 프랑스의 서점이 쓸쓸하게 됐다. 그의 독서 프로그램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중영된 그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회한이 질게 배는 것은 책을 쓰는 사람, 책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그의 인간적 예의 때문이 아니었을까. 책을 매개로 보여줬던 그의 인간적 미덕이 그렇다. ■